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9.(월) 18:00 / 11.10.(화) 조간 배포 2026. 11. 9.(월)

헝가리 진출 배터리 기업, 친환경 파트너쉽 강화

- 통상교섭본부장, 11.9일 헝가리 부총리, 경제에너지부·지역개발부 장관 면담
-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및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당부
- 배터리 기업 간담회 개최 및 ESG 경영 강화 선언식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도 다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헝가리에 대거 진출한 배터리 업계의 현지 경영지원과 한-헝가리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11.9(화) 헝가리를 방문하여 어니터 오르반(Anita Orbán)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이스트반 카피타니(István Kapitány) 경제에너지부 장관 및 비크토리아 뢰린츠(Viktória Lőrincz) 지역개발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와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및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본부장은 한국이 헝가리의 주요 투자국이자 아시아 최대 투자국으로서 자동차·배터리·전자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현지 협력업체 육성, 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헝가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식품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분야의 경우, 헝가리의 전기차 산업 등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및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의 전략 산업으로써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 내에서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EU 산업가속화법(IAA) 추진에 따라 역내 생산기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유럽 내 주요 배터리 생산국인 헝가리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구축한 생산기반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EU의 역내 제조역량 강화라는 IAA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 발전과 유럽 내 생산·공급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배터리법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박 본부장은 같은 날 헝가리 진출 한국 배터리 기업,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헝가리한국대사관 및 KOTRA 등과 함께 「ESG 경영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환경·보건·안전 분야에서 공동의 책임을 함께 지고, 헝가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경영 강화 노력을 독려하고, 이러한 노력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언식과 연계해 기업들과 간담회도 개최하여 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본부장은 “한국에게 헝가리는 '25년 기준 교역 47억불, '26.6월 누적 기준 EU내 7위 투자 대상국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특히 헝가리에 진출한 삼성SDI, SK온 등 우리 기업들은 그간 약 80억불 이상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양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이 헝가리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헝가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은 다시 우리 기업의 성장과 유럽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경제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이승헌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4266)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진승덕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희 (044-204-56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